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조혜경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ue to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Cho Hae Kyung
Professor, Choda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C도에 소개하는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한 251명의 설문지를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인관계유능성($r=.361, p<.001$)과 자기결정성동기($r=.466, p<.001$)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r=.091, p=.148$).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38.7%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를 강화시키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관련요인들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융합적 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descriptive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vergent relationship of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ed from 251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located in C province from June, 2018 to July, 2018 a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As a result, there a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r=.361, p<.001$)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r=.466, p<.001$) and self-regulated-learning-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have not meaningful relationship($r=.091, p=.148$). It is turned out that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re influenced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on the developing new educational methods through convergence of factors by analyzing relevant factors to enha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hat affect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Key Words : nursing student,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convergence of factor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의 행정체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으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간호사의 대인관계유능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대인관계유능성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

*Corresponding Author : Cho Hae Kyung(hkcho43@cdu.ac.kr)

Received October 30,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27,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3]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개방적인 태도, 적절한 표현, 환자 개인의 특성에 대한 존중, 경청 등과 관련이 많으므로[4,5] 대인 관계유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간호대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학습목표가 될 수 있다. Chant 등(2002)은 대인관계유능성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은 이론과 임상실습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6], 대상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목표와 과업을 성취하도록 돕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유능성을 간호대학생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임상에서 간호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으며[4,5], 대상자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대인관계유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그러므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기 이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과제수행 과정을 지켜보면, 조별 과제의 경우 역할 분담이나 과제 기여도가 달라 조원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 갈등들을 조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인 대인관계유능성을 발휘하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강화시켜 준다면 조별 과제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감을 느끼는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고, 과제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을 느끼는 외재적 동기가 부여된다면 스스로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포함하는 자기결정성동기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며, 학습의 집중도, 이해도, 만족도 등이 높다고 하였다[7][8]. 전통적으로 학습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는데 내재적 동기는 학습 자체에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며, 외재적 동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 혹은 강압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결정성동기는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개념을 확장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동기의 핵심으로 보고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학습하는 외적조절동기와 타인으로부터 느끼는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피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기 위해 학습하는 부과된조절동기를 타율적동기라고 하며, 주어진 과제가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하지만 학습 자체에 대해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는 확인된조절동기와 과제 자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학습하는 내재적조절동기를 자율적동기라고 하였다[9,10].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기결정성동기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진로준비[11], 자율성지지와 학습성과[12], 학업성취[13],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14]등이 주로 교육학에서 연구되고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Zimmerman & Martinez-Pons(1988)는 학습자의 동기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5].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16] 자기결정성동기가 발현될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17]처럼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18,19]. 일반적으로 자기조절을 잘 하는 학생은 과제수행 수준이 높고 계획이나 문제해결을 잘 하며,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해낼 뿐만 아니라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20]. 또한 김명희 외(2006)는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관계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21]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동기를 가지고 자기조절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한 연구들은 자아상태, 자기인식, 타인인식, 문제해결능력,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등이 있었으나[22-24],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1.2.2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1.2.3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최대 그룹 수 15를 적용한 결과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가 199 명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C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에서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결측이 많은 설문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5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결정성동기

자기결정성동기 측정도구는 Ryan & Connell(1989)[25]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self-regulation Questionnaire-Academic, SRQ-A)를 기초로 박병기 외(2005)[26]가 개발한 척도를 유지원(2011)[27]이 대학생용으로 수정하였고 이것을 차유미(2018)[28]가 다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하부요인은 확인된 조절 6문항, 내재적 조절 6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3.2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는 정미경(2005)[29]의 대학생용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동기조절 32문항, 인지조절 31문항, 행동조절 25문항으로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Cronbach's α 가 .93~.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3.3 대인관계유능성

대인관계유능성 측정도구는 Buhrmester 등(1988)[30]이 개발한 대인관계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을 한나리와 이동귀(2010)[31]가 한국 대학생에게 맞게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총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계 형성 및 개시 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 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 개방 3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C도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본 연구자가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 번호로 자료를 관리할 것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연구보조원이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유능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확인하였으며, Scheffe로 사후 검정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결정성동기, 대인

관계유능성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상관관계로 확인하였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51, n(%))
Gender	Female	185(73.7)
	Male	66(26.3)
Grade	Third grade	97(38.6)
	Forth grade	154(61.4)
Religion	Christian	65(25.9)
	Catholic	9(3.6)
	Buddhism	10(4.0)
	None etc.	165(65.7) 2(0.8)
Academic achievement	High	134(53.4)
	Low	117(46.6)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	117(46.6)
	So so	115(45.8)
	Unsatisfaction	19(7.6)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28(51)
	So so	101(40.2)
	Unsatisfaction	22(8.8)
Student relations	Satisfaction	167(66.5)
	So so	80(31.9)
	Unsatisfaction	4(1.6)

전체 대상자 중 여학생이 185명(73.7%), 남학생은 66명(26.3%)이었고, 3학년 97명(38.6%), 4학년 154명(61.4%)이었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165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 65명(25.9%), 불교 10명(4.0%), 가톨릭 9명(3.6%), 기타 2명(0.8%)이었다. 학업성취도를 직전학기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을 ‘상’으로 B⁺ 미만을 ‘하’로 분류하였는데 ‘상’에 속하는 학생 134명(53.4%), ‘하’에 속하는 학생 117명(46.6%)으로 이전 학기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이 더 많았다. 학교생활에 대해 느끼는 만족정도는 만족한다 117명(46.6%), 그저 그렇다 115명(45.8%), 불만족이 19명(7.6%)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한다 128명(51%), 그저 그렇다 101명(40.2%), 불만족이 22명(8.8%)이었으며, 교우관계는 만족한다 167명(66.5%), 그저 그렇다 80명(31.9%), 불만족이 4명(1.6%)이었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ifference of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 or t(p)	F or t(p)	F or t(p)
Gender	Female	.393	.272	.679
	Male	(.695)	(.786)	(.398)
Grade	Third grade	3.270	1.166	.877
	Forth grade	(.001) [*]	(.245)	(.381)
Religion	Christian	2.071	1.448	.235
	Catholic			
	Buddhism			
	None etc.			
Academic achievement	High	.906	.528	4.200
	Low	(.366)	(.598)	(.000) [*]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 ^a	3.162	.457	7.386
	So so ^b	(.044) [*]	(.633)	(.001) [*]
	Unsatisfaction ^c	a>b		a>b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3.653	4.871	15.639
	So so ^b	(.027) [*]	(.008) [*]	(.001) [*]
	Unsatisfaction ^c	a>b	a>b	a>b,c
Student relations	Satisfaction ^a	14.662	6.212	12.315
	So so ^b	(.000) [*]	(.002) [*]	(.000) [*]
	Unsatisfaction ^c	a>b	a>b	a>b,c

대인관계유능성 전체 평균은 3.34±0.43, 자기결정성동기의 전체 평균은 2.78±0.59,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전체 평균은 3.31±0.36이었다. 성별과 종교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학년별 대인관계유능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270, p=.001). 학업성취에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4.200, p<.000), 학교생활 만족 정도에 따라 대인관계유능성(F=3.162, p=.044)과 자기조절학습능력(F=7.38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Scheffe로 사후 검정한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보다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았다. 전공만족은 대인관계유능성(F=3.653, p=.027), 자기결정성동기(F=4.871, p=.008), 자기조절학습능력(F=15.639, p=.001)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Scheffe로 사후 검정한 결

과,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는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높았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불만족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인관계유능성($F=3.162, p=.044$), 자기결정성동기($F=3.162, p=.044$), 자기조절학습능력($F=3.162, p=.044$)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Scheffe로 사후 검정한 결과,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는 교우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높았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교우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불만족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대인관계유능성($r=.361, p<.001$)과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기결정성동기와의 중간 상관관계가 있었다($r=.466, p<.001$).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 과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r=.091, p=.14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Variable	1	2	3
1.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1		
2.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466 ($p<.000$)	1	
3. Interpersonal competence	.361 ($p<.000$)	.091 ($p=.148$)	1

3.4 대상자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1.667로 2에 가깝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산팽창지수 VIF는 1.055-1.111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P-P도표에서 잔차의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점도에서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으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교우관계 등 일반적 특성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유능성($\beta=.290, p<.001$), 자기결정성동기($\beta=.425, p<.001$)이었으며, 38.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variable	B	SE	β	t	p	VIF	Durbin-Watson
constant	1.123	.196					1.667
Interpersonal competence	.244	.044	.290	5.560	.000	1.111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258	.031	.425	8.348	.000	1.055	
$R^2=.404$ Adj. $R^2=.387$ $F=6.900$ $p<.00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학습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성(3.34 ± 0.43)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전체 평균(3.31 ± 0.36)이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유능성(3.26 ± 0.54)과 자기조절학습능력(3.39 ± 0.38)과 유사하였으며[32], 자기결정성동기의 평균(2.78 ± 0.59)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성동기 중에서 확인된 동기(3.22 ± 3.73)와 내재적 동기(2.87 ± 4.102) 보다 낮았다[28]. 자율성이 중요한 자기결정성동기가 낮은 것은 간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법이 국가고시 위주의 수업과 핵심기본간호술과 같이 프로토콜을 수행함에 있

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교과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된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기본 술기를 체득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요구되므로[33] 교과목 이외의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자기결정성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서 자기결정성동기에 대한 분석이 우선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3학년 보다는 4학년이 높았고, 학교생활만족($F=3.162$ $p=.44$), 전공만족($F=3.653$ $p=.027$) 그리고 교우관계($F=14.662$ $p<.001$)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도 잘하고 전공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대인관계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유능성의 평균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상남 외(2018)의 연구(3.33 ± 14.42) [34]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은이(2011)의 연구결과(3.31 ± 18.18) [3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학교생활만족(3.41 ± 0.39), 전공만족(3.41 ± 0.42), 교우관계(3.44 ± 0.39)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보다는 약간 낮았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과 비교과 활동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결정성동기는 전공만족도($F=4.871$ $p=.008$)나 교우관계($F=6.212$ $p=.002$)에서 만족하는 학생과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 또한 학교생활만족($F=7.386$ $p=.001$), 전공만족($F=15.639$ $p=.001$), 교우관계($F=12.315$ $p<.001$)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학교생활이나 전공에 만족하고 교우관계도 좋은 학생은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자기결정에 대한 선택과 기회를 주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이 속해있는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이나 학습활동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4.200$ $p<.001$), 대인관계유능

성이나 자기결정성동기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하위권 학생보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위한 학습전략이 필요한데, 정은이(2012)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수업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율성 지지였으며 그 외에 발표와 토론 위주의 수업, 학생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 과제 부여와 피드백, 취업과 연계된 과목 등의 요인들이 있었다[35]. 자율성 지지를 비롯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수업에 적용하여 성적 하위권 학생들도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유능성($r=.361$ $p<.001$)과 자기결정성동기($r=.466$ $p<.001$)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지수 외(2015)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하게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며($r=.45$ $p<.01$) [36]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관계($r=.36$ $p<.001$)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이자 보호자이며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유아교사의 경우 수업이 전적으로 교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37] 간호대학생보다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유능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대인관계유능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이 중요한 반면 자기결정성동기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변수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인관계유능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웠으나 김서현 외(2015)의 연구에서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학교 내 대인관계인 교우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8]. 이를 통해서 학습과 대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앞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유미 외(2018)의 연구에서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beta=.514$ $p<.001$) [28]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 측정도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기결

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조한익(2014)이 자기결정성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내재적 동기와 자기조절학습, 확인된 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39]. 이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 갈수록 내적인 목표보다는 외적인 목표에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교육현실과 관련이 있으며[40] 경쟁상대와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41,42]. 간호학과는 학점이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학습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영 외(2018)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유사실험연구를 3주간 수행한 결과 학습동기가 수행전보다 수행 후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되었다[43].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들이 더 많이 수행되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세 변수의 상관관계에서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기결정성동기가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교수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를 강화시키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관련요인들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법 개발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S. Chung.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332-340.
- [2]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 [3] B. H. Spitzberg & D. J. Canary.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eRvSBwAAQBAJ&oi=fnd&pg=PR5&dq=handbook+of+interpersonal+competence+research&ots=gUoUDfkYeU&sig=2AL0uENRK1gdHPIDcSmQu5Wc4mE#v=onepage&q=handbook%20of%20interpersonal%20competence%20research&f=false>.
- [4] S. J. Lim & E. A. Park. (2014). The 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Attitud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ew Visiting Nurses in Community Health Cente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3(2), 115-122.
- [5] H. S. Jeong &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 [6] S. Chant, T. Jenkinson, J. Randle & G. Russell. (2002). Communication skills: some problem in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1(1), 12-21.
- [7] R. M. Ryan & J. P. Connell.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tio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on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8] R. J. Vallerand, M. S. Fortier & F. Guay. (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161-1176.
- [9] E. L. Deci & R. M. Ryan. (2000). The genet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10] E. L. Deci & R. M. Ryan.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y Inquiry*, 11(4), 227-268.

- [11] Y. J. Lee & K. H. Lee. (2010). Subtype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2), 267-287.
- [12] J. S. Chung & J. H. Lee. (2012). Path analysis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n a cyber univers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8(3), 365-387.
- [13] S. M. Han.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ademic motivation variables,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29-350.
- [14] B. K. Choi & S. H. Cho. (2014). The analysis of change in college students' interaction with faculty and peer students and differences in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52(3), 29-54.
- [15] B. J. Zimmerman & M. Martinez-Pons. (1988). Construct validation of a strategy model of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84-290.
- [16] J. H. Kim. (2014). Multiple mediated effect of self-determinative motivation to learn and self-regulated strategies on the relation between successfu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Journal of Future Youth Society*, 11(2), 43-61.
- [17] J. H. Lee. (200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67-92.
- [18] H. J. Lee. (2008). Types of Motivation for Self-Determination: Children's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Child Studies in Asia-Pacific Contexts*, 29(3), 273-288.
- [19] Y. A. Choi & M. H. Yang. (2013).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on affective characteristics: A meta-analysis. *Secondary Education Institute*, 6(4), 931-961.
- [20] M. J. Lee. (2011). The problem and challenges for self-regulation studies.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9, 161-193.
- [21] M. H. Kim, J. H. Ha & K. H. Cha.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motivation, multiple intelligence, learn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school adjustment.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14(3), 57-79.
- [22] S. N. Kim, Y. M. Kim & S. Y. Lee. (2018).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61-72.
- [23] M. R. Son. (2018). Influence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on smartphone and internet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 27(1), 74-84.
- [24] E. J. Park. (2018).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ing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 [25] R. M. Ryan & J. P. Connell.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26] B. G. Bak, J. U. Lee, S. P. Hong. (2005). Reconstructing the classificatory pattern of learning motivation proposed by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3), 699-717.
- [27] J. W. You. (201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factor, psychological mediators and motivational factor for enhancing learners' eng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8] Y. M. Cha & W. Y. Eom. (2018). Structural Relations among Autonomy Suppor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Flow as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4(1), 27-51.
- [29] M. K. Chung. (2005).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18(3), 155-181.
- [30]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31]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 [32] J. S. Kim & H. J. Choi. (2015). Influence of gratitude disposi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eacher 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5(3), 247-267.
- [33] S. Kang. (2018). A Convergence Study about the Effects of Pre-learning and Role Learning Using Video on

- Self-regula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247-256.
- [34] S. N. Kim, Y. M. Kim & S. Y. Lee. (2018).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61-72.
- [35] J. E. I. (2011). Relationships of individuality, relatednes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7(2), 97-120.
- [36] J. S. Kim & H. J. Choi. (2015). Influence of gratitude disposi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eacher 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5(3), 247-267.
- [37] Y. S. Song & S. K. Yoo.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role-conflict scale for kindergarten teacher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8(4), 189-213.
- [38] S. H. Kim, H. R. Yim & I. J. Chung. (2015). Does self-direction in learning influ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addition to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Youth Welfare*, 17(1), 305-332.
- [39] H. I. Cho. (2014).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3(2), 233-251.
- [40] A. Y. Kim. (2014).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69-187.
- [41] Y. R. Kim & H. H. Yu. (2002).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Learners' Self-Efficacy, Instructional Motivation and School life-Related Coping. *Humanities*, 10, 93-115.
- [42] E. S. Choi.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43] J. Y. Park, H. N. Lim & D. R. Kim. (2018).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college: focusing on learning motivation, core competence, time management,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8), 331-341.

조혜경(Cho, Hae Kyung)

[중신회원]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호스피스, 인간관계
- E-Mail : hkcho43@hanmail.net